

석유업계소식

政府, 石油安定基金징수액 인하 精油社의 換差損 보전 위해

- 배럴당 1.72달러에서 0.55 달러로 -

정부는 환율상승에 따른 精油社의 추가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석유 안정기금의 징수액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동력자원부는 지난 12월 14일 금년중 환율상승에 따라 약 4%의 油 價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국내 油 價를 올리지 않고 대신 도입원유에 부과하는 석유안정기금의 징수액을 현행 배럴당 1달러 72센트에서 55센트로 1달러 17센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자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 현재 환율은 연초대비 6.3%나 상승, 당초의 예상상승률 3% 수준을 크게 웃돌아 원유대금 추가비용이 올해 1천 63억원, 84년에 1천 2백 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油 價의 인상요인만 누적되므로 석유안정기금을 줄여 정유사의 추가부담을 줄여주는 방침을 세우게 된 것이다.

동자부는 환율상승에 따른 원유대금 증가분 가운데 일부를 정유사에 분담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원가증가분 1천 63억원 가운데 나프타 가격 인상과 비축기금인하에 따른 수익 등을 뺀 6백 48억원만 원충대상으로 했다.

이 조치로 정유사는 올해 6백 48억원, 내년 1천 2백 13억원 등 모두 1천 8백 61억원의 결손을 보전받게 될 것으로 동자부는 분석하고 있다.

中長期에너지政策협의회 精油業界, 지원대책 촉구

동력자원부는 지난 12월 7일 하오 신라호텔에서 崔東奎 동자부장관, 李鳳瑞 차관, 尹承植 기획관리실장, 崔震頤 자원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정유·

석탄·가스·전력 등에너지관련업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에너지전락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정유업계에 서 具平會 대한석유협회회장을 비롯, 金恒德 油公수석부사장, 金珠石 京仁에너지이사 李承源 雙龍精油사장, 張洪宣 極東石油사장, 劉時鍾 대한

석유협회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具회장은『그 동안 정유산업은 국내소요원유를 안정적·경제적으로 공급 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지적, 정유산업의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효율성과 경제성이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는 정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육성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具회장은 또한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정유업계의 환차손누증문제에 언급, 『환율이 1% 상승에 따라 1.3%의 油 價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환율이 7%선에 이를 경우 정유업계는 1천 2백여억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고 밝히고, 油 價연동제의 조속한 실시와 아울러 정유업계의 추가부담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具회장은 석유사업기금 중 일부가 석탄산업 등 다른 분야에 전용되면서도 정작 정유산업이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치 못한 것이라고 지적, 정유산업에 대해서도 배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精油業界 換差損대책 등 촉구

崔東奎 장관과 간담회

具平會 대한석유협회 회장 등 정유업계대표들은 지난 12월 2일 엔지니어클럽에서 崔東奎 동력자원부장관

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정유업계 당면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崔장관 취임이후 처음가진 이날모임에서 정유업계대표들은 환율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3%를 훨씬넘어 연말까지 7%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유업계의 환차손은 약 1천2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정유업계의 추가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崔장관은 『업계의 어려움은 이해가 가지만, 당장 석유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연내에 석유사업기금을 인하, 환차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유업계에서 具平會 대한석유협회회장을 비롯, 崔鍾賢 油公사장, 金昇淵 京仁에너지사장, 李承源 雙龍精油사장, 張洪宣 極東石油사장 및 劉時鍾 대한석유협회부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動資部, 国内油価 안올려 換差損, 석유기금 인하로 補填

정부는 환율상승에 따른 精油社의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低물가정책과 관련, 現 油價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다만 정유사의 손실에 대해선 석유사업기금의 일부 인하조정방식으로 補填해 줄 방침이다.

또 국내도입가격이 크게 내린 LPG에 대해선 연말까지 국내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現 수준을 유지하되, LPG기금을 인상조정, 수입가와 국내공급가와의 차익을 흡수하기로 했다.

동자부에 따르면, 환율상승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환율연동제 실시와 함께 그때 그때 보전해 준다는 방침 아래 당초 지난 10월중에 가격조정, 관세조정 및 기금인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나, 물가안정시책과 현재 검토 중에 있는 油價관리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내년초까지 정유사 손실보전문제를 미루기로 했다.

동자부는 그 동안 검토해온 원유 및 제품에 대한 관세조정방안이 관계부처의 異見으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석유사업기금을 인하조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수입원유에 대해 징수하는 석유사업기금은 배럴당 비축기금 70센트, 개발기금 10센트, 안정기금 2달러 9센트(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 1달러 94센트, 원유도입다변화지원금 15센트) 등 모두 2달러 89센트인데 내년초부터 일정기간동안 안정기금 중 1달러 94센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을 폐지하고, 70센트의 비축기금 징수액도 인하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崔震碩 전력국장 승진발령

動資部자원정책실장에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동력자원부자원정책실장(1급)에 崔震碩 전 전력국장을 승진발령했다.

油公, 部課長級 대규모인사 승진 17명, 전보 30명

油公은 최근 과장급 이상 17명을 승진, 30명을 전보하는 등 모두 47명의 간부급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 승진

- ▲ 노무부장겸 페트로민 훈련팀장 박대운(페트로민기능공훈련팀장·차장)
- ▲ 光州지유소지유과장 문규석(수송부유상수송과철도수송계획원)
- ▲ 사장실영업담당팀원과장 이강훈(사장실영업담당팀원기간사원)
- ▲ 濟州지유소지유과장 송종국(仁川지유소작업과운영반장)
- ▲ 실험실실장(차장) 박주훈(실험실실험1과장)
- ▲ 석유정제부제유2과장 김희동(석유정제부제유1과제유기사)
- ▲ 蔚山건설사무소NAC 공사행정담당(과장) 설성준(자재부외자과외자구매원)
- ▲ 기술부공정기술차장 김동석(정유시설확장사업부정유시설과장)
- ▲ 기술부전문직полни계담당(차장) 노영목(기술부장치과장)
- ▲ NAC공사차장 김정식(관리부구매과장)
- ▲ 공장장실실장(차장) 최병남(공장장실공무팀장·과장)
- ▲ 정유시설확장사업부대시설팀장(과장) 김중호(정유시설확장사업부정유시설과확장사업기사)
- ▲ 석유화학시설확장사업부전기담당팀장(과장) 김영식(석유화학사업부동력시설과확장사업기사)
- ▲ 蔚山건설사무소NAC 공사기술담당(과장) 이상훈(기술부배관과설계기사)

- ▲ 蔚山건설사무소부대시설공사과
장 김광선(기술부장지과설계기
사)
- ▲ 기술개발부기술지원과장 민호
기(기술개발부기술지원과안전
기사)
- ▲ 노무부공보과장 허천식(노무부
공보과공보원)

□ 전 보

- ▲ 관리부장 김종(노무부장)
- ▲ 기술지원연구소건설준비팀장(부
장) 이선규(공장장실실장)
- ▲ 大田저유소관리과장 윤희목(光
州저유소저유과장)
- ▲ 서울저유소관리과장 김병호(大
田저유소관리과장)
- ▲ 수송부육상수송과장 이용광(서
울저유소관리과장)
- ▲ 馬山저유소중질유저장과장 구
영기(馬山저유소작업과장)
- ▲ 공장부 기술지원연구소요원(차
장) 박경재(실협실실장·차장)
- ▲ 공장부기술지원연구소요원(과
장) 임갑수(석유정제부제유2
과장)
- ▲ 공장부기술지원연구소요원(과
장) 김문도(페트로민기능공훈
련팀학과교관·과장)
- ▲ 공장부기술지원연구소요원(과
장) 강성윤(페트로민기능공훈
련팀선임실기교관·과장)
- ▲ 공장부기술지원연구소요원(과
장) 박상조(大邱영업소직매운
활과장)
- ▲ 기술부전문직발전기담당(차장)
지성태(기술부전기담당차장)
- ▲ 정유시설확장사업부 정유시설차
장 황보열(정유시설확장사업부
저유소시설사업차장)
- ▲ 정유시설확장사업부프로젝트플
프로젝트담당(차장) 박종길(정
유시설확장사업부차장)

湖南精油, 2억弗塔 수상

제20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湖南精油(대표 具平會)는 지난 11월 30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
린 제20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3억4백 32만달러의 석유류를 수출
한 공로로 2억불탑을 수상했다. 정유회사가 수출탑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날 기념식에서 文路9씨(湖油수급부)는 석유류수출증대에 기여
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湖南精油는 지난 81년 6월에 하루 15만배럴의 석유정제시설을 증설
하여 현재 하루 38만배럴의 국내 최대 정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2차 석유위기 이후 석유수요의 감퇴로 석유정제시설의 일부가 유휴상
태로 남게 되자 해외수출시장개척에 적극 노력하여 올해에 日本, 台灣,
홍콩, 호주 등 8개국에 모두 3억4백 32만1천달러의 석유류 수출실
적을 올렸다.

이러한 수출실적은 전년도 수출실적 1억5천7백75만5천달러에 비
해 무려 93%의 신장세를 기록한 것이다.

湖南精油는 특히 잉여 집축개질설비의 활용으로 2차 가공제품인 휘
발유와 개질나프타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을 주로 수출했으며, 그
결과 정유공장의 가동률도 약 9.6%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 ▲ 기술부공정기술1과장 노성동
(기술부공정기술과장)
- ▲ 기술부공정기술2과장 김일준
(기술부공정담당과장)
- ▲ 정유시설확장사업부공정시설팀
장(과장) 김종식(정유시설확장
사업부저유소시설과장)
- ▲ 정유시설확장사업부저유소시설
팀장(과장) 장수현(蔚山건설사
무소설비공사과장)
- ▲ 석유화학시설확장사업부구매담
당팀장(과장) 김덕우(사업관리
팀자재관리과장)
- ▲ 사업관리실자재관리과장 김종
진(정유시설확장사업부부대시
설과장)
- ▲ 蔚山건설사무소설비공사과장 임
석왕(정유시설확장사업부공사
감독팀장·과장)
- ▲ 기술지원연구소설립준비팀팀원
(과장) 송병수(기술개발부기술
지원과장)
- ▲ 관리부구매과장 홍종호(공장장
실노무관리팀장·과장)
- ▲ 공장장실운전지원담당(과장)
김일남(페트로민기능공훈련
선임실기교관·과장)
- ▲ 노무부교육과장겸페트로민기능
공훈련팀행정담당(과장) 이용
주(페트로민기능공훈련팀행
정담당·과장)
- ▲ 운영부육상수송유과장 한완수(페
트로민기능공훈련팀선임실기교
관·과장)
- ▲ 석유화학시설확장사업부부장 류
제완(석유화학확장사업부부장)
- ▲ 사업관리실실장(차장) 김종수
(사업관리팀팀장·차장)

▲ 석유화학시설확장사업부공정시 설팀장(과장) 고보상(석유화학 확장사업부석유화학시설과장)

▲ 석유화학시설확장사업부동력시 설팀장 이연길(석유화학확장사업부동력시설과장)

□ 퇴 직

▲ 사운진(관리부장)

▲ 오평길(釜山영업소)

油公, 본사에 새 전산실 가동 IBM4341 시스템 도입

油公전산부는 최근 여의도 본사 신축사옥 18층에 새로 전산실을 마련, IBM4341(그룹-2) 시스템을 도입·설치했다.

새로 도입된 IBM4341 시스템은 주 기억용량 8 메가바이트 및 보조기억 용량 830메가바이트의 디스크 드라이브 4대, 테이프 유니트 4대, 카드·리더, 시스템 프린터 등이 연결 운용되고 있으며, 컬러그래픽기능을 갖춘 터미널을 비롯하여 14대의 단말기가 접속되어 있다.

卞圭七 湖油부사장 선임 렉키금성스포츠 初代사장에

렉키금성그룹은 지난 11월 7일 설립된 주식회사 렉키금성스포츠사장에 湖南精油의 卞圭七부사장을 선임했다.

주식회사 렉키금성스포츠는 12월 중순에 창단된 렉키금성 프로축구단을 관리·운영하게 된다.

京仁 창립14주년 기념식 5년근속자 64명에 기념패

京仁에너지는 지난 11월 3일 창

제2회 본사-공장 야구정기전 온산공장팀 2연패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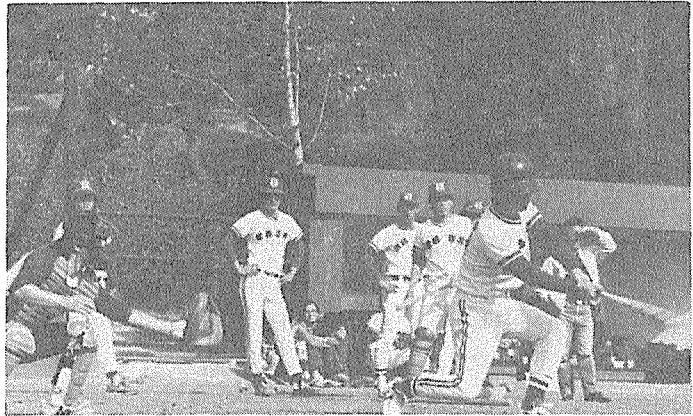
제 2회 쌍용정유 본사-온산공장의 야구정기전이 지난 10월30일 교문리 소재 상업은행 구장에서 열렸다. 본사 야구동호인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온산공장 야구동호인회가 본사팀을 19대13으로 대파하여 작년에 이어 2 연패를 달성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본사 야구동호인회 단장인 홍오식 이사는 『순수한 아마츄어 정신에 입각하여 평소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본사와 공장의 친목을 통한 일체감을 조성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하자』는 개회사로 선수들을 격려했다.

개인상은 고춘석 사우(공장 관리실)가 최우수상을, 조길래 사우(본사 판매 3부)가 우수상을 받았다.

온산공장 야구팀은 최근 실력이 급상승하여 서부경남 지역의 강호로 부상되고 있으며 본사팀은 작년의 제1회 쌍용그룹 동호인 야구대회에서 우승하였다.

본사-온산공장 야구정기전은 매년 개최되며 내년 제 3회 대회는 공장 야구동호인회에서 주최할 예정이다.



립 1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영업부서의 申鉉哲부장 등 5년 근속자 64명에게 기념패를 주었다.

이날 李鍾學전무는 장기근속상을 받은 직원들과 회사의 발전에 헌신 해온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1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어진 자세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

高硫黃油 해외위탁精製 雙龍, 日社와 계약체결

최근 국내 일부 精油社가 高硫黃重油를 외국정유사에 賃加工의뢰, 低硫黃油로 탈황해 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雙龍精油는 최근 日本 오끼나와石油精製회사와 임가공계약을 맺어 우선 1백50만배럴의 高硫黃重油를 탈황처리해 오기로 했다.

이같은 위탁정제는 공해방지대책으로 고유황유가 남아도는 반면 국내에서는 탈황시설이 없어 부득이 취해진 것으로 국내 고유황유를 수출하고 저유황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먹힌다는 것이다.

3회 온산공장 체육대회 윤희생산부 종합 1위

쌍용정유 온산공장에서는 지난 11월 5일 온 공장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사장기 쟁탈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공장내 각 경기장에서 벌어진 체육 대회는 5개 팀으로 나누어 축구, 배구, 소프트볼, 줄다리기, 500m계주 등 5개 종목을 놓고 각축전을 벌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3연승을 노린 정비부를 누르고 윤희생산부가 종합 득점 1위로 영예의 우승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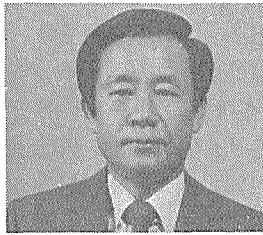
이번 대회를 통하여 화합과 친선을 더욱 다지고 직원들간의 일체감 조성으로 보다 능률적인 업무 수행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雙龍 여직원들 자선다과회 본사18층라운지에서

쌍용정유 본사 여직원들의 모임인 화학회(회장: 조숙자)에서는 지난 10월 28일 본사 18층 라운지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자선다과회를 마련하였다.

이 모임은 본사 직원 및 그룹내 각 사 직원들의 많은 참여로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며 이날 모아진 수익금은 연말에 고아원 상록원(관악구 남현동 소재)을 방문, 위문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油開公 李源祚사장 연임 孫晉官 부사장도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韓國石油開發公社의 李源祚사장과 孫晉官부사장을 각각 11월 1일자와 11월 20일자로 연임·발령했다.

油開公 部課長級 10名 人事 지난 11월 17일자로

韓國石油開發公社는 지난 11월 17일자로 부과장급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 검 직

▲ 총무부장겸직(1급) 권영희(비상계획실장)

□ 전 보

▲ 제1 비촉관리사무소장(1급) 정해주(총무부장)

▲ 제2 비촉관리사무소장(1급) 이동수(시설부기획역)

▲ 감사실장직무대리(2급) 이근택(기획조사부차장)

▲ 총무부차장(2급) 서호정(제1 비촉관리사무소장)

▲ 총무부기획역(인사상담역·2급) 김봉희(총무부차장)

▲ 업무부기획역(송유관건설·2급) 장대현(제2 비촉관리사무소장)

□ 승 급

▲ 기획조사부차장(2급) 김동식(감사실 검사역)

▲ 시설부차장(2급) 지재웅(시설부시설계획과장)

▲ 개발부관리차장(2급) 계덕남(개발부관리과장)

“石油에서 종이 만든다” 科技院 7國에 特許

韓國科學技術院(KAIST) 화학공업부 尹漢殖박사팀은 12월 6日 石油나 天然가스에서 간단한 공정을 통해 펄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尹박사는 「石油를 원료로 한 새로운 펄프제조방법과 종전 제지방법을 혁신한 새제지방법을 지난 8月 30日 美国, 日本 및 西유럽국가 등 모두 7 개국에 물질특허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치안본부, 가짜휘발유 단속 55명 적발, 19명 구속

경찰은 지난 11월 한달동안 화공약품인 톨루엔과 솔벤트를 섞어 만든 가짜 휘발유단속에 나서 주유소 주인 등 전국에서 55명을 적발, 이중 19명을 구속하고 36명을 입건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유소업자들은 톨루엔과 솔벤트를 섞어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20ℓ 당 8천원씩(정상휘발유는 1만3천2백원)에 팔아 자동차의 매연공해를 가중시

켜운 혐의다.

이들은 논 가운데나 빈 창고 등에 지하탱크를 만들고, 철제고물상, 야적장등으로 위장, 가짜휘발유를 만들어 팔아 왔는데 그동안 이들이 팔아 온 가짜휘발유는 모두 3백18만5천ℓ (11억1천6백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가짜휘발유를 사용할 경우,

매연이 많이 나와 공해를 가중시키며, 차량의 고장원인이 되는 등 피해가 커 앞으로 이같은 상인들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펴 적발되는 업자는 가장 무거운 벌로 다스리기로 했다.

石油協會 불우이웃돕기성금
여직원들 “사랑의 찻집” 열어

대한석유협회 여직원들의 모임인 장미회는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돕기 운동의 하나로 지난 12월 16일 하오 협회 회의실에서 「사랑의 찻집」을 열었다.

石油協會는 이날 찻집운영으로 얻은 수익금등 10만원을 마련, 12월 19일 中央日報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 消費国短信 □

유럽 精油能力 20~30% 減縮되어야만

12월 13일 파리에서 개최된 IEA 理事会에서 정유공장稼働率을 80~90%의 正常水準으로 올리기 위해 유럽의 총정제능력을 20~30% 감축시켜야만 할 것이라는 報告書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OGN/wire紙에 따르면 동보고서는 需要減少 뿐만아니라 OPEC 石油製品의 對유럽 수출증대로 유럽의 石油業界가 곤경에 처해 있다고

밝히면서 OPEC 石油製品의 對OECD 수출은 1986년까지 200万b/d로 배증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유럽과는 달리 美国은 需要가 증가되고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日本은 정제능력을 이미 감축시켰기 때문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프랑스, 石油製品價格 策定에 대한 公式 변경

프랑스政府는 프랑스貨에 대한 달러貨의 가치를 반영키 위해 매일 国内石油製品價格 책정시 사용하는 公式을 1 달러에 대해 7.90 프랑에서 8 프랑으로 변경시키기로 결정했다고 業界消息通들이 지난 12월 5일 전했다.

프랑스는 금년 9월부터 石油製品價格 책정에 있어서 單一變動換率을 채택, 1 달러에 대해 7.70

프랑으로 정한 후 계속되는 달러貨 強勢로 11월부터 이를 7.90 프랑으로 올렸었다. 業界消息通들은 프랑스政府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달러貨에 대한 프랑貨의 비율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1월에 달러貨 對 프랑貨의 실제 평균비율은 1 對 8.17로 나타났다.

美国의 對 OPEC 石油依存度 감소추세

美国의 총수요에 대한 原油 및 石油製品輸入比率이 1977년의 46%에서 금년 1~9월에는 28%로 줄어들었다고 美에너지省이 지난 12월 7일 밝혔다.

美에너지省은 또한 OPEC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이 격감했다고 말하면서 OPEC 가운데서도 특히 아랍諸国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은 1977년

의 1/6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1977년에는 美国의 最大石油供給源이었던 사우디는 총수입석유의 불과 6% (1977년에는 16%)를 공급하고 있는데 금년 1~9月中 美国의 石油供給國을 큰 順序로 열거하면, 멕시코, 캐나다, 베네수엘라, 英国, 인도네시아로 사우디는 다음에 해당된다.